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이시가와의 골무」
글그림 김민재
바느질할때 없어서는 안되는 골무.
이 하찮은 골무도 손색없는 발명품
이라는 사실
나없이 바느질 어떻게~
이마도 중세때에 바늘귀에 실넣기 수십번 짜증나~
발명가는 일본의 '이시가와' 피혁공장에
다니던 그는 어느날 아내가 상처를 들키우며
살바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놀라서 다는데 백년이래요~
어느세월에 그걸~ 불으로 하면 안돼?!
고무 밴드 끼워라~
안쓰러운 부인의 모습을 본게된 이시가와는
쯧쯧... 저 재봉틀 골로 쇠골무가 살에 박혀 저러는구나!
원인은 바느질을 하는동안 쇠골무를
손가락에 끼고 있었는데
쇠골무
손가락 그대로 골무를 벗고
벌겋게 부어오른 손가락을 호호 불어
다시 쇠골무를 끼고 바느질을 계속
하는 것이 였다.
이시가와는
달랑이라도 살아는 질을
그만두라고 아내에게...
말하고 싶지만
내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크크

이일을 계기로 이시가와는 손가락을 아프게 하지 않는 골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로또에 당첨되기 전엔
아내가 부업을 그만둘수는 없어! 그렇다면...
그러던 어느날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이시가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가죽조각을 발견했다.
에구~ 저 아까운 걸~
순간 이시가와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골무를 만들때 쇠대신 부드럽고 질긴 가죽을 사용하면 손가락이 아프지 않을것이란 확신이 선 것이었다.
왜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지?
이것으로 아내도 만족할거야
드디어 이시가와는 자신의 가죽골무를 제작한후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여보~ 골무에도 부드러운 재료가 있다니 너무 편해요~
히, 칭찬 말지!
이시가와는 가죽골무의 실용신안출원을 마치고, 골무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가죽골무의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 인생 '가죽골무'에 올인이다!!
당연하~ 지
집안일도 좋아하고~!!
그의 결정은 대 성공이었다!! 주문량은 날로 늘어갔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50여가지의 새로운 골무도 개발했다.. 그는 '골무의 제왕'이 된것이었다...
이 골무를 끼느자...
골무~ 골무~